

LG 'G7 씽큐'로 카이저 제대로 즐기자 “ZKW 인수로 후전장사업 선도”

〈넥슨 모바일게임〉

LG전자-넥슨

전략적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LG전자가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과 손잡고 'LG G7 씽큐(ThinQ)'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와 넥슨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 사옥에서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과 높은 제품 완성도를 갖춘 LG G7 씽큐와 웅장한 스케일, 화려한 액션의 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 '카이저'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슨은 카이저를 즐기기 위한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LG G7 씽큐를 선정했다. LG G7 씽큐는 LG전자는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약 1000니트의 휘도를 구현하면서 색상까지 풍성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중 최초로 탑재한 'DT S:X'는 고급 이어폰 없이도 최대 7.1채널의 영화관 같은 고품격 입체 음향을 제공한다.



LG전자 한국모바일그룹장 이상규 부사장과 넥슨 이정현 대표(왼쪽)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에 참여해 악수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와 넥슨은 공동 마케팅으로 게임 마니아들에게 차별화된 모바일 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 G7 씽큐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15만원 상당의 카이저 아이템을 받고, 별도로 '넥슨카이저팩'을 선택하는 고객은 25만원 상당의 특별 아이템인 VIP 쿠폰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40만 원의 게임 아이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LG전자는 LG G7 씽큐에 카이저를 기본 탑재하고, LG G7 씽큐 체험존에 카이저 체험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쉽게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서윤 기자

〈자동차 헤드램프 전문 제조사〉

구본준 LG 부회장

미래 핵심역량 확보 위해 선제적 투자 포트폴리오 강화·차세대 제품 개발

구본준 LG 부회장은 15일 열린 임직원세미나에서 "이번에 인수를 결정한 ZKW로 우리가 주력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의 시장 선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사업을 위한 핵심 역량을 모으자 주문했다.

LG그룹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최고경영진 및 임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월 임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구 부회장은 "지난달은 LG사이언스파크가 오픈한 뜻 깊은 달이었다"며 "LG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경영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인수한 ZKW는 자동차용 헤드램프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우리가 주력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의 시장 선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구본준 LG 부회장. /LG그룹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회장은 "앞으로도 LG의 미래 사업을 위한 핵심 역량은 내외부의 힘을 모아 키우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투자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와 LG는 지난달 글로벌 프리미엄 헤드램프 전문 제조사인 Z

KW를 약 1조44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이다.

LG는 ZKW 인수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는 물론, 차세대 융복합 제품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자동차 부품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회장은 "비록 경제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일부 사업은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체질 개선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 변화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원세미나에서는 국제거래통상법 전문가인 장승화 서울대 법학부 교수를 특별강사로 초청해 최근의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새얼굴+안전성 강화 '더 뉴 K5 하이브리드'

기아차, 연비 효율성·편의성 개선

기아자동차가 스타일과 안전성, 편의성을 강화한 '더 뉴 K5 하이브리드'(사진)를 15일 출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더 뉴 K5 하이브리드는 복합연비가 18.0km/L(16인치 타이어 기준)로 기존 모델(17.5km/L) 대비 높은 연비 효율성을 갖췄다.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용량이 기존 1.62kWh에서 1.76kWh로 8.6% 늘어나 연료 소비 없이 전기로만 운행 가능한 전기차(EV) 모드의 효율도 개선됐다.

디자인은 올해 초 출시된 '더 뉴 K5'의 요소를 적용했다. 전면부는 가로형 레이아웃의 LED 안개등과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넣었고 후면부는 LED 리어컴비램프를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측면부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하이브리드 전용 휠과 친환경차 전용 엠블럼(ECO-hybrid), 17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을 더했다.

안전사양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피로도를 줄여 주는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보조(HDA)와 운전자에게 맞는 최적의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DRM)를 갖췄다. 특히 주력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은 LED 헤드램프, LED 안개등, LED 리어 콤비램프,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후측방 충돌경고 등을 기본 적용했다.

이 밖에 카카오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를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 기반 내비게이션과 미국 최상급 오디오 브랜드 크렐(KRELL)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했다.

더 뉴 K5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세제 혜택 후)은 ▲프레스티지 2890만원 ▲노블레스 3095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35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상선, PSA와 부산항 4부두 공동운영

각각 지분 50% 보유... 합이서 체결

현대상선이 15일 싱가포르 항만운행사 PSA와 '부산항 4부두 공동운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양측은 ▲부산항 신항 4부두(PSA-현대부산신항만) 지분을 각각 50% 보유 ▲최고경영자(CEO)는 현대상선이, 최고재무관리자(CFO)는 PSA가 임명 ▲부산항만공사는 현대상선과 PSA의 터미널 운영을 지원 ▲현대상선과 PSA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정책에 적극 협조 등

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와스카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50%를 현대상선이 40%, PSA가 10%를 인수하면서 현대상선과 PSA는 각각 지분 50%를 확보 하게 됐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기존 HPNT 하역 효율 인하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와 건조 예정인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정적 기항을 위한 선석 확보가 가능해 졌다. 또한 HPNT 운영을 통해 향후 얼라이언스 선사의 부산 기항을 유도해 부산항 환적 물량 및 수익 증대를 통한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갤럭시S9 시리즈, 국내 개통 100만대 돌파

국내 출시 후 약 60일 만에 갤럭시S9 시리즈 세번째 최단 기록

삼성전자 갤럭시S9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갤럭시S9 시리즈의 국내 개통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3월 16일 국내 출시 후 약 60일 만에 받은 성적으로, 갤럭시S9의 판매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S9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갤럭시S 시리즈 중 세번째 최단 기간 기록이다.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던 전작보다는 저조하지만, 시장은 초기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갤럭시S9+. /삼성전자

작년 4월 출시된 플래그십 제품 갤럭시S8시리즈가 시판 37일 만에, 2011년 나온 갤럭시S2가 40일 만에 개통 100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갤럭시S9시리즈는프리미엄폰으로 처음으로 국내에 완전 자급제로 출

시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갤럭시 팬 파티' 등 체험 중심의 마케팅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9의 100만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16일부터 'S9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갤럭시S9 사용자가 지인에게 갤럭시S9를 추천해 구매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고, 추천인 대상 AKG헤드폰을 5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도 추천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또 삼성전자는 작년 갤럭시S8에서 선보인 버건디 레드 색상의 갤럭시S9시리즈를 중국에 이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출시해 판매량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한화토탈,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 건설... 첫 출하 성공

석유화학 고부가제품... 다용도 사용 독자 개발 기술로 연간 1.2만t 생산

한화토탈은 충남 대산공장에 석유화학 고부가제품 중 하나인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생산 및 첫 제품 출하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토탈이 이번

▶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위치한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 전경.



독자 개발한 공정 기술을 통해 고순도 노말헵탄 7500톤을 비롯해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고순도 노말헵탄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순도 99% 이상으로 노말헵탄만을 추출하여 만드는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제약 성분 추출제, OLED 등 디스플레이 코팅 공정, SBR(합성고무의 일종), MMA(합성수지의 일종) 등 석유화학 제품 제조공정의 용제 및 용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이번 한화토탈의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독자 개발한 생산공정 기술인 SM

B(Simulated Moving Bed) 공법을 적용해 상업생산 및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고순도 노말헵탄은 미국 웨브론필립스, 독일의 할터만, 일본의 TOA 오일, 한국의 SK종합화학 등 소수 기업만이 생산기술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술장벽이 높은 제품이었다. 한화토탈 연구소에서 약 5년간의 연구기간 끝에 독자 개발에 성공한 SMB공법은 공정 내 흡착과 탈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나프타 분해 부산물에서 효율적으로 노말헵탄만을 분리해 내는 기술이다.

고순도 노말헵탄은 전 세계 약 9만톤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일본,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제약·전자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2022년까지 매년 4~6%씩 안정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토탈은 이번 상업생산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서윤 기자